

# AIDS NEWS

## 美FDA 새로운 에이즈치료제 승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하루에 한번만 복용하면 되는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에파비렌즈(상품명: 수스티바)를 승인함으로써 하루 여러차례에 걸쳐 20여개의 알약을 먹어야 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FDA는 뒤풍제약회사가 개발한 이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가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최고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테아제抑制劑와 효과가 비슷하며 무엇보다 이 약은 하루 한차례 3개의 캡슐을 복용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에이즈 환자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알약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DA 바이러스국장인 하이디 졸슨 박사는 그러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환자들은 성급히 수스티바로 바꾸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에이즈 전문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투여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항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전까지는 서둘러서 다른 약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聯合)

## 2주만에 박멸 '에이즈치료제 T20'개발

에이즈 바이러스(HIV) 박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 엘라바마 대학의 마이클 커비 박사는 의학전문지 네이처 메디신 11월호에 발표한 임상실험 보고서에서 트라이머리스 제약회사의 신약 「T20」이 HIV를 99%까지 소멸시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T20을 HIV양성환자 16명에게 여러 단위로 투여한 결과 투여단위가 가장 높았던 4명은 2주 만에 혈액속의 HIV가 99%까지

파괴됐다는 것이다. 커비 박사는 「기존 치료제가 일단 정상세포에 침투한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데 비해 이 신약은 감염의 첫 단계인 HIV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T20을 최고단위로 투여했을 때 나타난 효과는 기존 치료제를 장기간 혼용투여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지만 이렇다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98/11/05)

## [아프리카] AIDS로 수년내 인구증가율 감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아프리카 인구 증가율이 AIDS 만연으로 2~3년 안에 0%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 CNN방송은 워싱턴 소재 [월드워치]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AIDS 감염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국

민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잠재적 AIDS 환자로 밝혀졌다. 짐바브웨의 경우, 현 추세대로 AIDS감염률이 늘어난다면 4년 내에 인구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AIDS 감염자 및 발병환자, 사망자 증가와 함께 부모가 AIDS로 사망한 [AIDS 고아]도 크게 늘어났다. 우간다에만 170만명이 넘는 [AIDS 고아]가 있다. 아프리카 국가는 대부분 AIDS 감염자를 적절하게 관리·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고 국민 의식이 낮은데다 식량 위기, 수자원 고갈, 환경 파괴, 정치·사회적 무질서까지 겹친 상태다. 레스터브라운 월드워치 회장은 출산율이 높음에도 사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8/9/28)

## [태국], HIV 감염여성에 낙태 허용계획

태국 법무부는 에이즈 바이러스(HIV)나 에이즈에 감염된 임산부들이 적절한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오는 각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또 출산아가 신체적 기형이나 정신적 불구가 될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에이즈 감염 여성들은 자신들이 에이즈로 죽고 난 후 아가들이 고아가 되는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아가가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걱정하며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불행도 면하게 될 것이다. (방콕=연합)

# AIDS NEWS

## [보건복지부] 에이즈감염자 '격리보호 조항' 삭제

보건복지부는 에이즈감염자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 대해 국가가 일정 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정된 전국 37개 에이즈 전문진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해, 감염자들이 원하면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98/10/7)

## '94년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 AIDS 환자 9명 적발

지난 94년 이후 입국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9만2천6백62명 가운데 법정 전염병 감염자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9명을 포함해 모두 5백3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수생으로 신검을 받은 9만2천6백62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한 경우로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사전신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앙일보, 98/10/29)

## [전화조사] 성인 44.5% "헌혈한적 있다"

한국 성인의 44.5%가 헌혈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10명 중 7명은 헌혈로 인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9.4%는 [헌혈로 인해 에이즈나 다른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8/9/29)

## [식약청] 인터넷 의약품 불법광고, 국제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국내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을 수시로 검색해 불법·과대 광고를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검색을 실시. 불법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사이트를 적발, 현재 처벌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색엔진은 '야후(YAHOO)'이며 검색어는 'Heart Disease(심장병), Cancer(암), AIDS(에이즈), Diabetes(당뇨병), Ancient Remedy(고전 처방), Tea(차) 등 16개 사이트이다. (한겨레신문, 98/10/29)

## UNDP 밀레니엄회의 서울성명 채택

유엔개발계획(UNDP) 아태지역 밀레니엄 회의는 역내 국가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하는 '서울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밀레니엄 회의는 '서울성명'에서 "현재 아태지역의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개발과 관련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의 채택이 시급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역내 국가들은 에이즈(AIDS), 말라리아, 결핵 등 각종 질병의 퇴치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

## [판결] "에이즈 엇갈린 판정 당국 대조무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결과가 양성·음성으로 엇갈리게 나왔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해 온 30대 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는 이겼으나 대법원에서는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정씨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취업금지업종에 종사했던 만큼 그 뒤 음성판정이 나온 정씨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특별한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

## [사건] 동성애 에이즈환자, 술집 손님들과 성관계

살인혐의로 구속된 에이즈 환자가 감염사실을 숨긴 채 동성연애자 전용 술집의 점대부로 일하며 손님들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졌음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포장마차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李明世(23, 서울 강동구 성내동)를 조사한 결과,李明世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감춘 채 호스트바 점대부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李明世는 경찰에서 지난 96년 6월 군복무 중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었다. (서울=연합)

# AIDS NEWS

## [중국]에이즈 감염자 급증추세

중국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수는 효과적인 억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오는 2천년 1백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중국신문들이 보도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공식적으로 보고된 에이즈 감염자수가 3백38명의 환자를 포함, 1만1천1백7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백8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배이징=연합)

## [베트남] 감염자 15만명 넘은듯

베트남에는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1만5백63명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으나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최고 10배는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전국에이즈위원회가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완전한 에이즈로 진행된 환자가 1천9백1명이며 지난 90년 첫 환자가 발견된 이래 1천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98/10/27)

## 5명중 한명 성교시 에이즈 걱정안해

사람들은 평균 5명중 한명은 성교시 에이즈를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듀렉스는 이날 밝힌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성교 때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반면 17%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파리 AFP=聯合)

## [토픽] 40대 남성, 여성 수백명과 관계

92년부터 스톡홀름에 살며 조그만 택시 회사에서 근무해온 미국인 제임스 킴볼(40)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수백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달아나 스웨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스웨덴 경찰은 현재 킴볼과 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알린 여성이 65명이라고 밝히고, 그중 1명이 AIDS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8/10/22)

## [토픽] 日소녀들, TV드라마에 자극 에이즈 검진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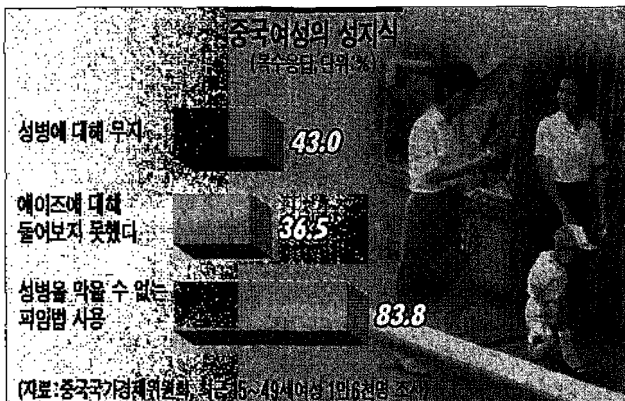
일본의 후지 TV가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용돈을 벌기 위해 나이트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원조교제'중 HIV에 감염되자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다투어 HIV검진을 받고 있다고. (조선일보, 98/9/22)

## [토픽] 에이즈 환자가 마을 주민들 마구 찢러

멕시코의 휴양지 아카폴코 인근의 마을에서 에이즈 환자로 의심되는 30대 남자가 지난 주말 자신의 몸을 찢러 피를 묻힌 주사바늘로 주민 2백여명을 마구 찢러 온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미겔 페레스(32)라는 이 남자는 문체의 주사바늘로 사람들을 찌른 뒤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 떠들며 돌아다니다 체포됐다. (한국일보)

## [토픽] 신데렐라, 에이즈광고 안한다

프랑스의 에이즈 퇴치운동 단체인 '에이즈정보 서비스'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를 내세워 콘돔 사용을 촉구하는 광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는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요염한 자세로 "사랑스러운 왕자님, 이것 먼저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문구가 포함된 2개의 광고물에 대해 '윌트 디즈니 프랑스'의 항의를 받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파리/AFP 연합)



# AIDS NEWS

## [인물/ 인터뷰] 하버드대 에이즈연구소 몬티 몬타노 박사



“문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하버드대 부설 에이즈연구소 책임연구원인 몬티 몬타노 박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HIV C형 바이러스가 인류에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며 에이즈 치료와 연구의 ‘남북 문제’를 우려했다.

—왜 아시아 아프리카가 문제인가  
이 지역에서 발원한 HIV C형이 최근 가장 활발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급속히 번지고 있다. 요즘에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 이 바이러스는 다른 유형에 비해 감염성이 강하고 돌연변이가 다양해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다른 유형은 안전인가

HIV B형 등 다른 유형은 현재 어느 정도 ‘조절과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치료제가 대부분 미국형인 B형 모델을 기준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B형은 그다지 진화와 전이가 빠르지 않다.

—연구소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은

치료제는 단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현재 3제요법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연간 환자 한명당 1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가 든다. 이렇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연구소에서는 기존 치료제

와 효과는 비슷하나 값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백신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현재 타이와 남아프리카에서 HIV C형 바이러스를 모델로 두가지 백신을 실험 중이다. 그러나 생백신 임상실험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윤리적 차이를 떠나서 생백신은 결정적으로 동물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에서의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게 확립된 연구 결과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생백신을 임상실험할 경우 상당한 사전 연구와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겨레신문 98/10/26)

## [인물] 'T20' 강명철박사

「T20」은 기존 에이즈 치료제와는 달리 HIV가 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획기적인 약. 미 언론들은 90% 개발완료 상태인 이 약이 상품화되면 최소 5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박사는 이 약을 개발한 「트라이메리스」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사. 회사내 70여명의 연구원중 유일한 한국인이자 연구와 경영을 함께 맡아 회사를 이끄는 핵심 4인방중 1명이다. 연구가 시작된 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2천5백만달러의 연구개발비가 들어왔지만 강박사는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연구에 들어간 지 1년만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96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6곳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모두 투자를 거절하더군요”

“과연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

니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에이즈 바이러스는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기 일쑤였죠. 미국당 연구실에서 외롭게 밤샘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미국인에게 지지 않겠다는 오기 때문이었어요”

## [독일] 독일의 에이즈 현황 동성애 감염이 전체의 50% 넘어



협회 독일본부장 이수길 박사

독일의 에이즈 감염인은 Berlin에 소재하는 Robert Koch 연구소에 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98년 6월 30

일 현재로 17,490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등록되어 있다. 감염경로를 보면 동성연애로 인한 전염이 전체의 51.8%나 차지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자는 14.9%, 이성간의 관계는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감염자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0%이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0%이다. 에이즈 환자는 남자가 89%, 여성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HIV 감염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은 500명 정도이며 에이즈 환자는 115명 정도이다. 독일 16개주 수도에는 에이즈상담소가 있어 에이즈환자들을 보호 하고 있다. 모든 치료비는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극소수의 유랑자, 결인, 외국피난민 등은 각 시, 군청의 사회과에서 역시 전액을 사회보조보험으로 치료를 해 준 대학병원 등에 지불하게 된다. A